◇ 혁명… 그 시대적 요구와 필연성의 해부 <7>

급진적 사회변동과 역사의 전환

민 만 식
<한국외대교수 · 정치학>

민족주의적 민중혁명·멕시코

이 혁명으로 국내적으로는 일인 장기 독재를 종식시켰으며 군사주의와 군벌주의가 종결되었다. 그리고 PRI의 탄생으로 정치안정이 제도화 되었으며 경제적으로 근대화가 크게 진전 되었다. 대토지사유제가 붕괴됨으로써 노예상태에 있던 농민이 해방되었으며 메스띠조의 지위 또한 크게 향상되었다

고유문화에의 자부심, 민족주체성 회복에 기여
체계적 방향제시 없어 기본목표 실현 미흡

I. 머리말

혁명이란 용어는 사회과학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전혀 생소하지가 않다. 한 나라에서 혁명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동시에 이론적인 요소도 지니게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혁명이라면 프랑스대혁명, 러시아의 볼세비키혁명을 연상하게 된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제국(諸国)에서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혁명은 멕시코혁명, 쿠바혁명, 니카라과혁명을 예로 들수 있다. 따라서 흔히 우리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제국형(諸国型)의 혁명이란 스페인어 골뻬 데 에스따도(Golpe de Estado), 불어로는 쿠데타(Coup d'etat)즉 군사정변을 통속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자주 일어나는 군사혁명이란 한 국가내에서의 기존지배 계급의 권력이 폭력에 의하여 또는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타집단으로 이행한다는뜻이 타당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과 성격이 다른 1910년의 멕시코혁명은 사회혁명뿐만 아니라 문화혁명적인 요소를 지니게 되었다. 또한 멕시코혁명은 그들의 토착문화(Indigenismo)에 대한 재인식과 이를 멕시코 민족주의운동으로 승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으며 혁명 이전에 뽀르피리오 디아스(Porfirio Diaz) 독재정권하에서 소외되고 박해받던 원주민(Indios)과 메스띠조 (Mestizo) 를 멕시코사회의 주체로서뿐만 아니라 멕시코문화의 원천으로서 부각시키게되었다.

본고에서는 민족주의적 민중주의의 현실적 실현으로서의 멕시코혁명을 살펴보려고한다.

II. 멕시코혁명의 원인

멕시코혁명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1910년 디아스 대통령이 9번째 재선을 시도하면서 민주주의자인 마데로(Francisco Madcro)를 중심으로 한 제반 세력들의 봉기에 의한 일련의 정치소요였다. 그러나 혁명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토지문제, 빈부의 격차 대외종속등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기본적으로 혁명을 절실하게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이러한 분위기를 실천적으로 수행할 세력의 등장과 성장을 규명하는데 필요하다.

1876년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한 디아스는 우선 지방경찰(guardia rurales)을 무력적기반으로삼고 지방군벌(caudillo)들을 수습하기 위해 지방의 실권자인 까우디를 그 지방의 최고행정관으로 임명함으로서 그들을 무마하는 한편 국가적 권위를 어느정도 갖추었다. 하지만 디아스의 궁극적 목표인 지방군벌체제의 해체와 중앙권력에로의 통합은 지방과 중앙을 연결하는 철도, 도로, 전신전화 등의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고는실현되기힘든상황이었다.

따라서 국내자본형성이 미약한 상황에서 외국자본의 유입이 디아스정권으로서는 불가피하였으며 이렇게 해서 유입된 외국자본은 철도, 석유, 광업분야에서는 멕시코 전체 자본의 약95%를 장악하게되면서 강한 종속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멕시코의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외국인들에 의해 고용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노조활동은 디아스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에의해 활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디아스정권의 말기에 이르면서 숫적인 확장과 함께 파업등과 같은 노동운동을 서서히 전개시켰으며 특히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렬한 혁명세력으로 성장해갔다.

한편 1892년 이후 진화론과 실증주의를 신봉하는 소위 과학주의자들 (cientificos)이라고 불리워지는 일단의 지식인들을 정부관료로 등용하여 자기의 독재체제를 이론적으로 정당화시키게 하였다. 이들은 진화론에 입각한 근대화를 추진한다는명분을 앞세워 인디언 원주민을 야만으로 규정하고 수탈, 학살, 토지박탈을 정당화하였다. 이렇게해서 토지에서 쫓겨난 인디언들은 아시엔다(hacienda)의노예적 농민(peon)의 확대와 함께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민중주의적 성격으로서의 혁명세력으로 성장했다.

결국 마데로의 산 루이스 뽀또시계획(Plan de san Luis potosi) 을 계기로 민족주의적 민중주의적 혁명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III. 혁명이론의 전개와 혁명과정

멕시코혁명에는 이론적이고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하나의 혁명모델을 제시해주는 인물이 없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멕시코혁명운동이 너무 방대하고 다양하기때문에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사상가에의해 대표될 수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결국 멕시코혁명은 그출발에서부터 이렇다할 뚜렷한 이데올로기를 갖지 못한채 우선 이론에서가 아니라 실천적 행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멕시코혁명은 협의(狹義) 의 개념에서는 혁명세력의 봉기(1910년) 부터 내란종식(1920년) 까지 광의(広義) 의 개념에서는 디아스(Porfirio Diaz) 정권말기부터 현재까지로 볼수 있다.

멕시코혁명의 지적전통은 하나의 커다란 흐름은 없지만 19 C말부터 간헐적으로 지속되고 있었다. 1893년 레껠메 (Felix Requelme) 는 대토지사유제도 (Hacienda) 의 노동체계를 노예제의 한 형태라고 공격하고 나섰고 1904년 디다프 (Juan Pedro Didapp) 는『멕시코의 정치착취자들』이라는 저서에서 정치변화를 요구하였으며 사라비아(Juan Sarabia), 비야레알(Antonio Villareal), 그리고 마따(Filomeno Mata) 등의 반체제지식인들이 디아스정부에 반기를 들었으며 플로레스 마곤 (Ricardo Flores Magón) 과 그의 형제들의 영향력도 이미 행사되고 있었다.

디아스정권말기에 있어서 반체제지식인집단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인물은 몰리나 (Andr'es Molina Enriguez)였다. 1909년에 발간된 그의 저서『국가의 대난제들』은 디아스정권말기의 혁명적 분위기를 가장 잘 반영하였으며 그의 주된 관심은 농지개혁문제에 있었으며 이를 해결할 방도는 디아스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고 결론짓고 이 혁명의 주도권 (hegemony) 은 반드시 스페인계 백인과 원주민 인디언 (Indio) 의 혼혈족인 메스띠조 (mestizo) 집단이 갖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몰리나의 이러한 메스띠조 혁명주도권론은 현지태생의 스페인계 백인지배계층인 끄리오요 (criollo) 는 기존의 상황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때문에, 그리고 농민은 국가적 시야가 부족하기 때문에 혁명을 주도해 나갈수 없다는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몰리나는 미국화(Americanization)의 영향을 우려하고 또한 모든 외국인은 멕시코의 주체성을 상실하려는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혁명은 민족주의적인 동시에 반외세적이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몰리나의 이러한 반외세론은 디아스정권의 외국자본과의 결탁을 겨냥한 것으로 볼수있다. 한편 이 당시 디아스정권의 고위관료로 등용된 소위 과학주의자들의 왜곡된 실증주의를 비판하고 철학적 명상의 순수성과 멕시코 민족주의사상에 호소하는 지식인집단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까소 (Antonio Caso) 를 중심으로 모여든 젊은 지식인들의 집단인 청년문예협회 (Ateneo dela Juventud) 였다.

1908년 당시 변호사인 모에노 (Querido Moheno) 는「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발표하여 독재정권하에서의 시민의 책임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줄것을 호소하며 대중의 정치참여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센띠에스 (Francisco de P. Sentíes)는 새로운 정당(政党)을 구성하는것이 디아스정권을 붕괴시키는 첫 단계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정치적 민주주의의 신봉자인 마데로 (Francisco Madero)도「1910년의 대통령 계승」이라는 저서를 발표해 디아스독재체제를 격렬히 비난하고 재선반대운동에 앞장섰다. 그러나 혁명세력이 요구하는 토지개혁문제와 사회개혁에 대한 마데로의 온건한 태도는 당시 북부지방과 남부지방에서 일고 있던 혁명적 분위기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마데로의 이러한 온건한 태도는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던 크라우지즘(Krausism)의 영향과 비교적 여유있는 가정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마데로는1910년의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면서 디아스정권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하였고, 이에 대한 디아스의 대응책은 마데로의 투옥과 선거강행이었다. 선거는 압도적 표차로 디아스의 승리였으며 10월에 국회에서 정식으로 대통령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탈옥한 마데로는 미국으로 망명 하여 거기서 선거무효와 디아스정권, 당시 수탈된 토지반환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 루이스뽀또시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호응하여 중남부 모레로스의 사빠따 (Emiliano Zapata) 그룹과 북부의 비야("Pancho" Villa) 그룹등 지방 군벌세력들이 일제히 봉기하였다. 이듬해 5월 디아스는 파리로 망명하고 11월 마데로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멕시코혁명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마데로가 취임 후에도 산 루이스 뽀또시계획과는 달리 토지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자 사빠따는 아얄라계획(plande Ayala) 을 발표하고「토지와 자유」(tierray libertad) 를 적극적인 행동으로 쟁취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멕시코는 내란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점차 사빠따그룹과 비야그룹세력이 확산되고 마데로는 그가 사령관으로 임명한 우에르따(Victoriano Huerta) 에 의해 암살되었으며 불법적으로 대통령의 권좌를 차지한 우에르따 역시 같은 해 7월에 축출되고 프랑스로 망명하였다. 이 때부터 멕시코의 사회적 혼란은 파벌간의 복수전의 양상을 띠면서 급속히 확산되어 갔다. 이 투쟁은 까란사 (Venustiano Carranza) 장군과 오브레곤 (Alvaro obregón) 장군이 이끄는 세력과 사빠따와 비야의 연합세력과의 대결이었다.

이러한 대결은 불필요한 유혈과 인명을 앗아갔다. 그러나 이러한 귀중한 피의 댓가로 1917년 2월5일 까란사대통령에 의해 멕시코신헌법이 공포되었으며 이헌법은멕시코혁명의 정신을 집대성한 것으로 볼수 있다.

1917년헌법의 내용은 대체로 미국헌법과 프랑스헌법을 모델로 하였던 1824년 헌법과 특히 1857년 개혁(Reforma) 헌법에서 강조한 국가의 역할을 크게 부각시킨것은 무엇보다도 멕시코혁명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라틴아메리카 여러나라들의 헌법과는 뚜렷히 구별된다. 이 헌법에서 멕시코혁명을 반영하고 있는 규정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은 토지개혁과 토지의 재분배를 규정하고 있는 27조이다.

또한 123조에서는 노동자의 권리와 임금, 노동조건의 개선을 규정하고 있다. 제 27조는 오로지 멕시코인만이 국가자원을 개발하며 토지의 최종적 소유자가 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와같이 이때까지의 봉건적 사회구조를 타파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사실 1917년 헌법은 당시로 보면 상당히 진보적이었고 세계의 첨단을 걷고 있었다. 하지만 이 헌법과 멕시코의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 헌법제정 자체가 혁명에 의한 사회혼란을 어느 정도 수습해보고자하는 입헌주의자들의 의도를 반영하는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이헌법의 구체적 실현은 차후의 과제로 남을 수 밖에 없었다.

1917년 헌법제정을 계기로 멕시코혁명은 내란의 소요가 끝나는 전환점이 되고 1920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오브레곤대통령때부터 국가재건의 시대로 돌입하게 되었다.

젊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멕시코건설을 위한 독자적 문화창조운동이 일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이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르꼰셀로스 (Josè Vasconcelos : 1882∼1959) 인데 그는 건전한 철학적 기반위에서 멕시코의 민족적 주체성을 찾으려 하였다. 특히 그는 인종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스페인계 백인과 원주민 인디언 사이에 탄생된 메스띠조(mestizo)의 특성을 조화시키면 그가 말하는 소위「우주적인종」(raza cosmica) 의 탄생이 가능하며 이렇게 될 때 모든 인종적 차별과 인종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해소될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변증법적 해석에서 원주민에게 자기들의 문화 즉 마야와 아즈텍문화에 대한 긍지와 미래에 있어서 새로운 신념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한편 라모스(Samuel Ramos) 는「멕시코인과 그 문화에 대한 프로필」과「새로운 인간주의」등의 뛰어난 작품을 통해 진정한 멕시코의 주체성을 위한 휴머니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의 휴머니즘에 대한 신념은 스페인의 지식인 우나무노(Unamuno)와 오르떼가 이 가세뜨(Ortegay Gasset)의 사상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이였다.

멕시코의 민족적주체성을 찾고자하는 운동은 문화예술분야에도 두드러지게 반영되었다. 아즈텍문명에 대한 복원사업이 시작되었고 고고학적활동도 활발해졌다. 많은 작가들이 인류학적 분석과 인종적 분석에 몰두했으며 많은 학자들이 유카탄 (Yucatán) 과 떼오띠우아깐 (Teotihuacán) 의 유적을발굴하였다. 특히 미술가들은 과거의 전통을 되살리는데 큰 역할을하였다. 혁명직후 부터는 멕시코의 문예부흥이라고 자칭하는 유명한 벽화운동이 일어나 마야 아즈텍의 고대문명을 근간으로 하되 스페인적요소를 융합한 멕시코의 독자적인 문화가 창조되었다.

이러한 화단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리베라(Rivera), 시끼에로스(Siguieros), 오로스꼬(Orozco), 따마요(Tamayo), 꼬바루비아스(Corarrubias)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유럽의 전통에 반기를 들고 멕시코미술에 있어서 하나의 주제와 양식을 창조함으로써 민족적 주체성의 회복에 기여했다. 문학도 미술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었는데 이 시대의 주제는 주로 멕시코혁명을 소재로 한 영웅전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아수엘라(Mariano Azuela), 또레스(Jaime Torres Bodet)등이 대표적인 작가들이다.

1920년대가 혁명의 제도적기반적 기반이 점차 뿌리를 내리는 시기였다면 1930년대는 1917년헌법의 이상을 정책으로 수행해가는 시기라고 볼 수있다.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초반까지의 재임기간동안 까예스(Plutarco Elies Calles)대통령은 굳은 의지와 역량으로 토지의 분배, 도로건설사업 등을 착수하여 1917년헌법의 정신을 구현화시키는 데 기초를 다져놓았다. 1934년에서 1940년 까지의 까르데나스 (Lazaro Cardenas)대통령시대는 멕시코 혁명의 전성기였다고 평가된다.

까르데나스는 취임후 급진적 개혁을 시작하였다. 그는 멕시코 혁명이 아직도 미완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혁명의 충실한 완수와 멕시코의 민족적 주체성의 확립과 공고화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철도및 주요기업들을 국유화시키고 대토지사유제를 해체하여 농업공동체에 반환시키고 노동조합의 조직을 지지하였으며 노동법, 사회, 경제, 교육개혁법을 제정하였고 외국인 소유의 석유회사를 국유화시키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급진적 개혁은 혁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농업노동자 도시근로자 등의 저소득 계층에게는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않고 여전히 외국자본에의해 민족적 주체성이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주의적 민중주의를 대표하고있던 까르데나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멕시코 혁명에 있어서 까르데나스의 가장큰 공헌은 멕시코혁명을 제도화시켰다는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도 집권여당의 위치를 확고히하고 있는 PRI(제도혁명당) 의 전신인 멕시코혁명당을 농민, 노동자, 민중, 군부 등의 4개 부문으로 재조직된 것도 이 때였다.

IV. 멕시코혁명의 평가

멕시코혁명은 세계사적 차원에서 볼 때 러시아의 볼세비키혁명보다도 앞서는 20세기 최초의 사회혁명이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지역적 차원에서는 멕시코혁명의 직접적 산물이라 할 수 있는 1917년 헌법이 이 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헌법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국내적 차원에서 볼 때는 이 혁명으로 1인장기독재를 종식시켰으며 군사주의와 군벌주의가 종결되었다. 그리고 PRI의 탄생으로 정치안정이 제도화되었으며 경제적으로 근대화가 크게 진전되었다. 대토지사유제가 붕괴됨으로써 노예상태에 있던 농민이 해방되었으며 메스띠조의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다. 뿐만 아니라 예술전반에 새로운 혁명적 분위기를 고무시켜 멕시코인의 민족적 자존심을 고양시켰고 민족적 주체성은 민족주의의 앙양으로서 외세, 특히 미국의 간섭을 줄였다. 그러나 멕시코혁명에 대한 평가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멕시코혁명은 그 출발에서부터 뚜렷한 혁명이론이 없음으로 해서 혁명의 체계적인 방향제시가 없었다. 따라서 혁명적 분위기가 장기간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나타난 결과는 미약했으며 당초 혁명의 기본목표로 제시되었던 토지개혁에 의한 농업 노동자와 도시근로자들에 의한 혜택부여가 거의 실현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관제노조간부, 대기업가, 외국인투자가들이 이익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940년이후 산업화를 급속히 서둘러 온 알레만 대통령 시대에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정치안정이 제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PRI의 일당장기집권으로 인한 부조리도 무시할수 없는것 이다.

어쨌든 이러한 혁명의 부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인들은 70년대까지만 해도 라틴아메리카 제국들 중에서 제1의 경제발전과 정치안정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원유가의 하락과 같은 악조건을 예기치 못하고 지나친 건설투자를 한 전 정권 뽀르띠요대통령의 시행착오및 국영석유공사 간부와 이 기관에 관계되는 노조에 독직사건으로 여태까지 이룩해놓은 경제안정을 근본적으로 후퇴시키고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함께 대부채국이라는 오명을 갖게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오히려 멕시코의 경제적 문제인 빈부의 격차가 해소되기 보다는 더욱 하류계층의 생활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멕시코혁명이후 대부분의 멕시코 국가원수는 혁명정신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으며 현재 델 라 마드리드대통령도 그러한 지도자로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혁명이 일어난지 7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혁명의 불길은 꺼지지 않고 있으며 멕시코의 지도층이나 일반 서민도 혁명사업은 계속 점진적으로 성취되어야하며 그렇게 될것으로 전국민이 확신하고 있다.

동녘

32 혁명의 건설자들 〈근간〉
사회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확립한 마르크스, 마르크스주의를 혁명론으로 성취시킨 최초의 인물 레닌,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속에서 마르크스주의를 재정립한 모택동, 이 세 사람의 사상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전달해주는 본서는 그와함께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해서 현재의 사회주의운동의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었는가를 깨닫게 해준다. 마르크스주의와 혁명의 실천적 관계를 보여주는 기초적 입문서이다.

37 변혁기 러시아의 리얼리즘문학 G.루카치 지음
봉건 말기에서 사회주의 혁명기에 걸친 러시아 리얼리즘 문학의 가장 탁월한 작품들을 저자 나름의 고유한 리얼리즘이론에 입각하여 분석한 논문들이다. 작품의 존재 형식을 규정하는 현실의 사회적 토대를 규명하고, 작가의 인간적 예술적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친그 시대의 주요한 운동을 밝히며, 작품의 실제적 이념내용 및 그 이념내용에 적합한 미적형식을 그것의 사회적 근본현실에서부터 탐구한 이 책은 리얼리즘문제의 올바른 해결에 의해서만 역사적으로 올바른 발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우리의 문학실천, 문학이론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저서이다.

34·35 청년헤겔 G.루카치 지음/김 재기 옮김
헤겔의 청년기(1793∼1807) 발전과정을 그의 변증법적 사상의 생성에초점을 맞추어 서술한 책. 저자는 청년헤겔을 반동적·비합법주의로 해석하는시각을 배격하고 청년기 저술의 다양하고 명쾌한 분석을 통해 근대 부르조아사회의 내적 모순속에서 태어난 '시대의 아들' 임을 강조한다. 특히 헤겔의 변증법에 현실 그 자체의 변증법적 모순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변증법 내지 더나아가서 철학일반의 역사적·사회적 의미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한편, 헤겔 관념론의 위대성과 한계를 그의 비판적 계승자인 마르크스와의 연관속에서 입체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38 중국현대 문학사 菊地三郎 지음
5.4운동이후 봉건중국과 제국주의의 침략에 저항하면서 노신을 표상으로 하는 중국 신문학운동의 최대과제는문예통일전선의 형성과 문예대중화였다. 이 과제들은 항일전쟁이라는 구체적상황속에서 국민당지역의 백구에서는 모순과 말락의 저항문학으로 해방구에서는 마오문예강화이후 정령 조수리등이 문화공작대로서 대중 가운데로 직접 뛰어드는 형태로 전개된다. 이 책은 운동과정 중에서 문학가와 무명의 노동자, 농민, 병사 등이 어울려 빚어내는 중국문학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동녘선서 목록
1 세계식량위기의 구조 스잔 조지 지음/편집부 옮김/2,800원
2 현대금융자본론 生川榮治 엮음/선 경식 옮김/2,500원
3 서양경제사의 논쟁과 성과 小林良彰 지음/황 수철 옮김/3,200원
4 철학에세이 편집부 구성/2,400원
5 일본경제사 石井寬治 지음/이 병천 옮김/3,300원
6 일본현대사 藤原彰 외 지음/우 철민 옮김/〈근간〉
7 신간회연구 스칼라피노·이 정식 외 지음/3,400원
8 유한계급론 T.베블렌 지음/정 수용 옮김/3,200원
9 시민혁명의 구조 高橋幸八郎 지음/편집부 옮김/2,500원
10 마르크스의 인간관 E.프롬·H.포피츠 지음/2,000원
11 한국노동문제의 인식 김 윤환 외 7인 지음/3,500원
12 항일농민운동연구 浅田喬三 외 7인 지음/4,000원
13 인식론 모리스 콘퍼스 지음/이 보임 옮김/2,400원
14 정치경제학과 자본주의 모리스 돕 지음/편집부 옮김/3,500원
15 자본주의 이행논쟁 모리스 돕 외 지음/김 대환 편역/3,000원
16 자본주의 발전연구 모리스 돕 지음/이 선근 옮김/4,500원
17 한국근대사 渡部學 엮음/김 성환 옮김/2,800원
18 일본노동운동사 塩田庄兵衛 지음/우 철민 옮김/2,800원
19 여성의 지위 J.미첼 지음/이 형랑 외 1인 옮김/2,500원
20 인간의 역사 조 우화 엮음/2,400원
21 공동체놀이 연 성수 엮음/3,000원
22 공동학습진행법 이 성덕 지음/2,500원
23 동양정치사상사연구 守本順一郎 지음/김 수길 옮김/4,000원
24 분단한국사 김 정원 지음/4,800원
25 일반경제사 長岡新吉·石坂昭雄 지음/이 병천 옮김/3,000원
26 하늘의 절반 클로디 브로이엘 지음/김 주영 옮김/2,500원
29 여성해방·인간해방 〈근간〉
31 현장 동료와 함께 이 혜성 엮음/2,500원
32 혁명의 건설자들 〈근간〉
33 필리핀 민중의 역사 레나토 콘스탄티노 레티샤 콘스탄티노 지음/김 호절 옮김/3,500원
34 35 청년 헤겔 G.루카치 지음/김 재기 옮김
36 현대 정당론 G.사르토리 지음/어 수영 옮김〈근간〉
37 변혁기 러시아의 리얼리즘문학 G.루카치 지음〈근간〉
38 중국 현대문학사 菊地三郎 지음〈근간〉
우편번호 120 서울서대문구 충정로2가99-3·전화 313-6080

AN OUTLINE OF ENGLISH SYNTAX 柳津 敎授 著
구문도해 英語構文論
●英語原書를 좀 읽어보겠다는 사람은 構文法연구가 가장 긴요한 일이다.
●英語構文法을 모르고서는 會話·讀解·作文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될수가 없다.
양장미본 ₩ 5,600
TOEFL·VOCABULARY & TOEIC이 책들을 보기 전에 SYNTAX 제5형식 도해법부터 연구하라는 권위있는 지도교수들의 공인된 추천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지상강의서 기초·영어구문론 ₩ 3,400
●아무리 Conversation 이 급해도
●아무리 hearing 이 급해도 영어연구의 진보적이며 과학적인 지상강의서 기초구문론으로부터 !!!
百萬社 266-8304 서울·종로 6가 267

柳津 監修 酒井善孝 編著 宋丞鎬 譯著
碩博 大學院 大編入 留學 高考試 就職
英作英文法演習 1200題 / 眞本 英文解釈演習 1200題
390page 4,000원 / 700page 5,400원
本書의 內容 SIX PART
영문국역/내용파악/선택문제 완성문제/어휘문제/종합문제
●기본문제-A-(★)大入 ●표준문제-B-(★★)考試 ●난제문제-C-(★★★)碩博
영어의 독해·발음·문법·작문에 관한 전반적 분야에서 세심하고 과학적 분석으로 어떤 난해한 시험에 부딪쳐도 해결할 수 있는 영어의 급소를 다룬 입체적인 훈련書
※ 이 名著를 讀破하시오!
□ 1,200題 自習書 2,800원 □ 1,200題 단어숙어 1,400원
百萬社 288-8304 서울·종로 6가 267

三中堂 長期 베스트셀러!!
劉賢鍾 長篇小說 松嶽山 제2회 韓國文協賞 수상작
麗末鮮初의 격동과 혼란의 시대를 배경으로 충절과 배신 야망과 좌절, 음모와 사랑 등을 치열한 작가정신과 예리한 필치로 그린 유현종 문학이 거둔 韓國歷史文學의 불멸의 금자탑! 신국판/478쪽 ♣값 3,500원
永遠과 사랑의 對話 金亨錫 에세이
그의 글에는 사랑이 있다. 〈눈시울을 적시기도〉 하고 〈아름답게 살려는 공감〉을 나눈다. 最高의 발행부수를 기록한 超베스트셀러! 신국판/296쪽 ♣값 2,800원
超優良企業의 조건 T.J.피터즈 R.H.워터만 共著 이길진 譯
이 책에 脫불황의 길이 있다. 연속 중판 거듭 단행! 신국판/368쪽 ♣값 4,000원
＊55년 전통의 삼중당에서 정성들여 만들었읍니다.
서울·용산구 후암동 244-5 (754) 5401∼4·3901 三中堂

三中堂에서 만든 良書들!
正義란 무엇인가? 한스 켈젠 金榮秀 譯 신국판/288쪽 값3,800원
調査方法論講義 과학적 조사방법에 의해 기술한 유일한 책으로 사회과학도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力著! 金海東 著 국판/322쪽 값4,500원
最新 食品分析法 식품 연구기관, 식품분석 담당자및 식품공학을 전공하는 학생 등에게 필독의 책이다. 鄭東孝 張賢基 共著 양장본/480쪽 값7,000원
서울·용산구 후암동 244-5 (754) 5401∼4·3901·5919 三中堂